사찰·단체 겨울수련회 '참나 찾기' 참선 열기

무불선원·선정회·백양사등 프로그램 마련

"선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안됩니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내 생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불퇴전의 신심으로 정진하기 바랍니다." 1일 서울 논현동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 재가불자 동안거 입제식에서 50여명의 불자들이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직장인이 주류를 이루는 무불선원 동안거는 2000년 2월까지 석달동안 계속된다. 무불선원은 동안거수행을 비롯 참선체조와 호흡, 참선실수, 화두공부 등의 강좌를 통해 참나찾기에 나선 불자들을 이끌어 줄 계획이다.

연말연시와 겨울방학을 앞두고 사찰과 단체를 중심으로 참선수행프로그램과 겨울수련회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안거일을 기점으로 도심의 재가선방과 전통선방을 찾는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참선수행에 대한 열기를 실감케 한다.

서울 선학원 중앙선원 선정회도 11월22일 동안거를 시작했다. 지난 가을 추계선학강좌를 수료한 불자를 비롯 50여명이 자율적으로 수행에 임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토요일에는 철야참선정진이 진행된다. 수선회에서도 중앙선방과 강남선방, 양평선방 등 3곳에서 참선교육을 마친 회원을 대상으로 동안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마음선원 법형제회가 동안거 기간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참선법회를 연다. 또 길상사는 매일 새벽 4시30분~오후 9시까지 길상선원을 개방운영하고, 법련사도 매주 금요 불일선방을 통해 불자들을 이끌고 있다.

부산불교교육원과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선방도 매주 화요일 참선수행을 진행한다.

직장인을 주대상으로 열리는 일반 시민선방과 달리 백양사가 15일~내년 1월30일까지 4회에 걸쳐 4박5일 일정의 동계 참사람 수행결사를, 송광암에서도 23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5회에 걸쳐 겨울수련회를 연다. 또 봉선사가 내년 3월까지 매주 주말 겨울 선수련회를 마련했으며, 천태종 구인사도 12월 17일 종도들을 위한 동안거 입제에 들어간다.

이외에 부산 해운정사의 금모선원, 해인사 원당암, 통도사 보살선원 등 전통 재가선방에서도 2백여명의 불자가 한겨울 추위를 뜨거운 신심으로 녹이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무불선원 주지 명정스님은 "지식적인 불교에 한계를 느낀 불자들이 마음으로 온몸으로 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선방을 찾는다"면서 "불자들에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여주기 위해 적절한 수행프로그램 개발과 환경조성 등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겨울수련회 및 재가선방>

장 소	일 정	전화번호
백양사	15일~2000년 1월 30일 참사람수행결사	(0685)392-7502
송광암	23일~2000년 1월 23일 겨울수련회	(0666)843-8488
봉선사	2000년 3월까지 매주 토 일요일 겨울선수련회	(0346)527-1951
무불선원	1일~2월 말 동안거 시민선방(평일개방)	(02)541-0002
선정회	매월 셋째 토요일 철야참선정진(평일 개방)	(02)732-3327
수선회	중앙, 강남, 양평 동안거 수행	(02)732-5960
한마음선원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참선수행	(0343)470-3100
길상사	매일 새벽 4시30분~밤 9시 길상선원	(02)3672-5945
법련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불일선방(평일개방)	(02)733-5322
봉은사	매월 초 봉은선원 참선수행(평일개방)	(02)516-5652
부산불교교육원	매주 화요일 참선지도(평일개방)	(051)466-4080
맑고향기롭게	대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참선수행	(053)753-8883
금모선원	동안거	(051)746-2256
보살선원	동안거	(0523)383-8334
원당암	동안거	(0599)932-7308

진각종 첫 대중법회 '성공적'

진각종이 종단 역사 50년만에 처음으로 대중법회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물론 종단차원이 아닌 신도회 주최였지만 종단도 이를 적극 지원했다는 점에서 향후 진각종의 변화를 예상케 한다.

진각종 전국신도회단체인 총금강회 서울지부(지부장 지성)는 11월27일 종립학교인 진선여자 중·고등학교 회담기념관에서 혜정정사(진각종 종학연구실장)의 '밀교교리 대법회'를 개최, 1천5백여 불자가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서울교구가 그동안 불교방송을 통해 교리강좌를 해오던 혜정대정사를 초청해 포교활성화와 새로운 포교불사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행사.

신도 유가희씨(33)는 "그동안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법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막상 법회에 참석하니 진각종 신도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자주 이런 법회를 열어 우리 종단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단의 한 간부는 "앞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불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행사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종단에서도 포교활성화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사법부 오판' 헌법소원 제기

범불교 서명운동본부

사법부 판결로 혼란을 겪었던 조계종단이 명예를 회복하기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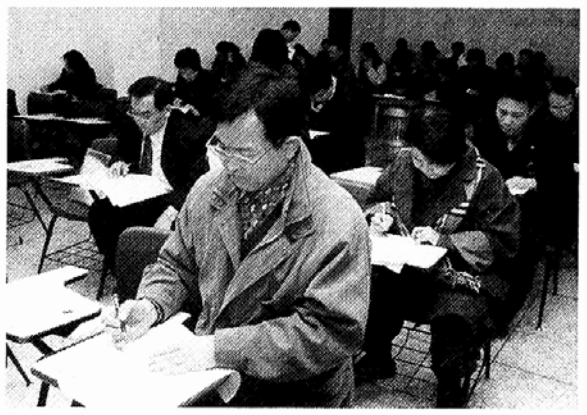
범불교전국서명운동본부(공동대표 백창기 박광서)는 조계종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10월 1일과 2일 총무원장 부존재확인및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재판에서 재판부가 내렸던 패소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또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일방적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함께 제소했다.

서명운동본부는 또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고산(前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이 청구인이며 피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이다.

서명운동본부는 이번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른바 정화측의 인사권 남발등에 따른 불법적인 사찰접거등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현행법상 구제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포교사가 되기위해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1월28일 오전 서울 등 전국 6개도시와 미국 LA에서 제5회 포교사 고시를 실시했다. 이번 포교사 고시에는 모두 7백여명이 응시했으며 오전 9시까지 시험장에 입실해 필기와 면접시험 등을 치렀다. 이번 시험 결과는 12월말 발표되며 내년 1월과 2월 두 차례 연수교육을 거친 뒤 최종 합격자가 선정된다.

사진=고영배 기자

총무원장 취임식 비용 불우이웃에 성금

지난 11월23일 취임식을 간단한 고불식으로 대신하고 절약된 비용을 불우이웃돕기에 쓰겠다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약속이 지켜졌다. 총무원은 2일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소년소녀가장·무의탁노인 각 10명씩 30명에게 50만원씩 모두 1천5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정대스님을 대신해 사회부장 양산스님이 전달(사진)했다. 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대불련 웹사이트 '해킹'

타종교인이 불자모임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이트 접속을 불가능하게 했던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불련 불자들의 모임 마당인 한메일넷 까페(http://cafe.daum.net/kbuf) 사이트가 아이디(ID)가 '할레루야'인 타종교인 회원의 해킹으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접속 불가능해져 수백명의 회원들이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글이 삭제되거나 시스템이 다운되는 등의 피해가 없고 해커가 사과를 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까페'는 11월27일부터 정상운영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상에서도 버그를 이용해 불교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훼불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도필선 기자

진관스님 석방 요청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는 11월 30일 청와대에 진관스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구본사주지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우리사회 무소유의 진실한 종교지도자인 진관스님의 석방을 간절히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

조선일보 칼럼에 문제제기

공주마곡사 바른언론실천연합 충남대교수불자회등 충남지역 본말사와 9개단체는 11월 27일 서울대 황동규교수가 조선일보 11월 27일 아침마당코너에 갑사개산대제 행사를 '무간지옥'이라 표현한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공개사과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성명에서는 또한 "편협된 글을 실은 조선일보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적대응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김원우 기자

한불총 임원진 전원교체

새회장에 문홍주씨 17일 불자화합 축제

천년을 향한 신행활동의 새 패러다임 구축 및 불자 대화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법회에는 65개 산하단체 회원 및 일반불자 1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물놀이 및 대합창, 법요식, 축하공연, 한불총 사회봉사단 출범선언 등으로 진행된다.

지난 3월말 김명윤 회장(한나라당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제출함에 따라 파행운영을 겪어 온 한불총은 문홍주 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송석구 동국대 총장, 우영섭 경기대 대학원장, 이강혁 덕성여대 총장, 김영수 한국헌법학회장, 황의철 KISS컨설팅그룹 연구소장 등 17명의 부회장과 이상진 사무총장(중문실업 대표)을 선임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면모를 일신했다.

문홍주 신임회장은 "이제 불교는 시대상황에 맞는 호국안민의 이념을 실천해야 할 때"라면서 "재가불자들의 신행을 지원하고 교단을 외호하며, 지역 갈등과 남북교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87년 18개 종단 총무원장의 합의아래 호국불교도총연합회로 창설된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93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서울지하철법우회와 군불교진흥회, 삼보법회 등 65개 불교신행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김재경 기자

포항에 노인의료 복지시설 개원

'정애원'…치매예방·정서함양 프로등 운영

경북 포항시 북구에 지역 노인들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이 건립됐다.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대표이사 난승)은 10일 오후 2시 정애원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에 나선다.

연건평 395평에 2층규모의 정애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 무의탁 노인들의 입소시설로 최대 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물리치료사, 간호사가 상주해 노인들의 편의를 돌보게 된다.

생활프로그램으로는 물리치료 및 수지침 등의 건강프로그램과 도예교실 홈패션 꽃꽂이 등의 여가선용 프로그램, 소리구별하기 퍼즐맞추기 등의 치매예방 프로그램, 서예 한글교실 풍물 인형극 등의 정서함양 프로그램, 게이트볼 주말농장(텃밭가꾸기) 등의 열린가람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또한 목욕, 세탁, 이·미용 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초음파 치료기, 온열치료기 등 최신식 의료장비와 난방장치가 된 욕실바닥 및 미끄럼 방지 원석을 사용한 화장실 등 노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 시설들이 완비돼 있는 등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난승스님은 "정애원은 다른 어느 시설보다 자연환경이나 안락함 등 모든 부분에서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부처님의 품속같은 복지시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대원불교교양대 아마추어 무선국 개국

한국불교대원회 부설 대원불교교양대학은 무선단체 불자들간의 상호교류와 무선망 포교를 위해 아마추어단체무선국(HAM)을 개국한다.

권오성 상임법사의 지도로 원혁재 국장, 김원대·정경애 부국장 등 15명의 햄동호회 회원들은 교양대학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26일 오전 10시30분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개국식을 갖고 24시간 운영체제에 들어간다. 또 개국식 당일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및 일일찻집, 찬불가발표회(상임지휘자 유이상)도 연다.

동호회는 학교 사진을 담은 교신증명 엽서를 6000장 준비해 교신자들에게 나눠주고, 전국의 햄동호회 불자들에게 예불의식 등 각종 불교교리 안내 및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02)754-1613 김재경 기자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94-8859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한성대학교

2000학년도 1학기 사회교육원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과정반 모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고,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는 불교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을 위한 불교종무행정 고위자과정을 1999년 3월에 개설 하여 지금까지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불교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의 전수, 각종행정기술의 습득은 물론 현대사회의 시사문제 등을 사계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심층분석 강의해 드립니다. 이번 신학기 첫 강좌는 컴퓨터를 통한 경전, 교육사업, 포교, 사찰관리기법을 강의하는데 컴퓨터 초보부터 인터넷까지 교육합니다.
둘째 강좌는 승려복지, 노인복지 등 불교계의 당면 과제인 "불교사회복지의 현실과 과제"를 강의합니다.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많은 호응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 · 아 래 · · ·

1. 수업기간 : 불기 2544년(2000년) 3월 둘째 주부터 6월 넷째 주까지 (2000. 3. 14~ 6. 27)
2. 강의 요일 및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까지(3시간)
3. 모집인원 : 40명 4. 수 강 료 : 1인당 30만원(한학기)
5. 접수기간 : 99년 12월 14일부터~2000년 1월 14일까지 ※전화접수도 가능함
6. 문 의 처 :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한성대학교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하차) 사회교육원 교학과 (전화 02-760-4401,4003 FAX 760-4002).

※ 수료생에게는 한성대학교 총장과 사회교육원장 명의의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과정 수료증을 드립니다.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개설과목표 (3기)

교 육 내 용	요일 및 시간	교육기간	모집인원 및 수강료
컴퓨터 교육기초부터 인터넷 활용법까지 (컴퓨터 1인 1대 실기위주) 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까지는 종무행정 수강생 컴퓨터 자체연습시간	매주 화요일 1교시 오후2시~3시 30분	1학기 15주 45시간	40명 30만원
현대사회문제, 복지와 불교와의 연관성 강의, 노인복지, 승려복지, 사회계층관련 심층강의	매주 화요일 2교시 오후3시 30분~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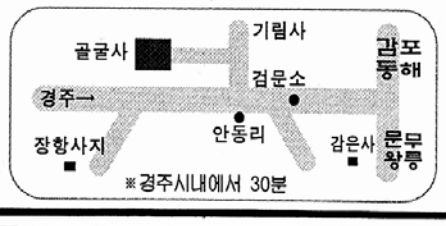
밀레니엄 성지순례

보물 제581호 마애여래불좌상

"함월산 골굴사 마애아미타여래불의 미소가 불자 여러분에게 새천년의 지혜를 드립니다."

골굴사는 1천 5백년전 인도에서 건너온 광유스님이 창건하였으며 암반전산에 동해의 문무대왕릉을 향해 마애불을 조성하고 12처 석굴을 파서 전실을 세워 법당과 요사로 가람을 조성한 전형적인 석굴사원으로서 한국의 돈황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10여분정도의 거리에 기림사와 감은사지, 문무대왕릉,장항사지를 참배할 수 있습니다.(서울에서 당일참배가능)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304
전화 0561)744-1689



禪武道 (선기공)
겨울수련회

선무도 大金剛門에서는 학업으로 지친 청소년들의 심신 회복과 선무도 수행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겨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1999년 12월 1일 ~ 2000년 2월 29일
⊙ 장 소 : 경주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 총본산)
⊙ 대 상 :
- 스트레스와 정서불안으로 병약한 학생 및 일반인
- 성인병, 만성병으로 고통받는 분
- 무도나 기공 수련에 큰 뜻이 있는 분
- 사고와 언행이 불량하여 선도가 필요한 청소년
- 신행단체, 사회단체 위탁연수 (매회 50명 단위)
⊙ 접수문의 : 전화 (0561)744-1689
FAX (0561)746-0172

포교원 및 지원·지부

서울 포교원 02-763-2980	울산포교원 052-275-1321
강남지원 02-3486-9001	양산연수원 0523-388-0921
부산포교원 051-516-3374	연제지원 051-759-5370
대구포교원 053-621-2626	보림지원 051-524-1600

(협회산하 20여 지원·지부가 국내외에 있음)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세계선무도 협회 大金剛門